구도심 달동네 '서러운 장마'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사는 이모(여·45)씨의 집 안방. 최근 내린 빗물이 천정·벽면 사이로 스며들면서 방안 곳곳이 검푸른 곰팡이로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만 오면 물바다 … 광주 100여 가구 피난민 신세

사랑의 집수리 사업 선정 힘들고 혜택 한정 '한숨'

낡은 집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장마는 지긋지긋하다. 천정과 벽에서 스며든 빗물로 방이 흥건해지는가 하면, 벽면에 가득 핀 곰팡이는 숨을 절로 멈추게 한다. 방안에 들이치는 빗물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피난민' 신세가 되기도 한다.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 1층 이모(여·45)씨의 안방. 23㎡ 크기의 방 바닥에 손 바닥을 갖다대자 누런 빗물이 흥건히 묻어났다. 벽지는 검푸른 곰팡이로 뒤덮여 악취를 내뿜었다.

참다못한 이씨는 창문을 열고 방안에 있던 낡은 선풍기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눅눅한 실내 공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담벼락에는 빗물로 얼룩진 이불과 옷이 널려 있었다.

이씨의 집은 비만 오면 넘쳐 방바닥이 '물바다'로 변하기 일쑤였다. 이씨는 장마가 시작된 후 마른 이불을 덮고 자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홀로 사는 이씨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 점심을 먹었다. 애꿎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북구 임동 주택 1층에 사는 조모(여·66)씨의 집. 조씨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일 내린 비로 방안에 물이 스며들면서 일찌감치 장성에 사는 친구 집으로 '피난'을 떠난 것이다.

조씨의 집은 연일 쏟아진 빗줄기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내리기 직전이었고, 구멍난 천정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천정을 여러장의 신문지로 덧댄 흔적은 장마로 구겨진 조씨의 심정을 보여주는 듯 했다.

장성의 친구집에서 만난 조씨는 "비만 오면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해마다 여름철이면 친구·친척집으로 피난을 다니고 있다. 집 수리를 하고 싶어도 7000만원이나 되는 빚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흐느꼈다.

광주의 경우 조씨 처럼 비만 오면 '피난민' 으로 전락하는 세대 수가 100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마철 마다 친구·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은 광주시의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다.

광주시는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올해 20가구의 낡은 주택을 보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44가구의 집을 고쳐줬다. 하지만 희망자가 너무 많은 반면, 예산은 한정돼 있다.

낡은 집때문에 장마가 괴로운 이들은 "겨울 추위는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빗물이 들이닥치는 문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다"며 "비 오는 날 내 집에서 두 다리 쫙 펴고 자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운암동 광암고가교 보수공사

10~20일까지 차량 전면 통제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암고가교가 보수공사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전면 통제된다.

광암고가교는 광주선 철도와 하남로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지난 1998년 건설된 지 12년 됐으며, 총연장 395m다.

광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포장콘크리트 열화와 방호벽 균열 등 결함이 발생해 시설물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도로 22곳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며, 4곳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악용

영·수 시간 대폭 확대

역사 등은 축소 부작용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교과별로 20%를 줄이거나 늘려 자율운영토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악용해 일부 학교에서 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을 집중 편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으로 수업이 없어진 교사들의 반발과 역사 수업시간 축소에 따른 관련 학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85개 중학교의 2011년도 교육과정 개편 계획을 분석한 결과,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수업시간이 늘고 기술과 역사·미술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기준시간 340시간보다 평균 23.5시간, 수학은 10.3시간 더 많이 편성됐다. 반면 기술·가정은 기준(272시간)보다 7.9시간, 역사(170시간)는 2시간, 미술은 2.2시간 각각 줄었다.

공·사립 간 격차는 더 벌어져 사립이 공립보다 수학은 21.8시간, 영어 20.6시간, 과학은 14.4시간 등이 더 많았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처음 도입된 집중이수제에 따라 이수 과목수가 11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든 만큼 기술과 미술 등 실업·예체능계 수업은 3년 6학기가 아닌 2년 4학기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일부 중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를 2년 4학기만에 이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수업시수가 확대 편성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업시수를 유연하게 적용해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국·영·수 시간 늘리기로 악용하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말 확정됐으며 각 학교별 편성과시·도 교육청 최종 확정 단계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초1~2, 중1, 고1 과정에서 적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과부 "일제고사 거부 땐 법적조치"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원 줄세우기를 초래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지난 1일자로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있었지만 평가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응시생에 개별 통보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9월 중 응시생에게 개별 통보된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평가 정보는 우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한편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74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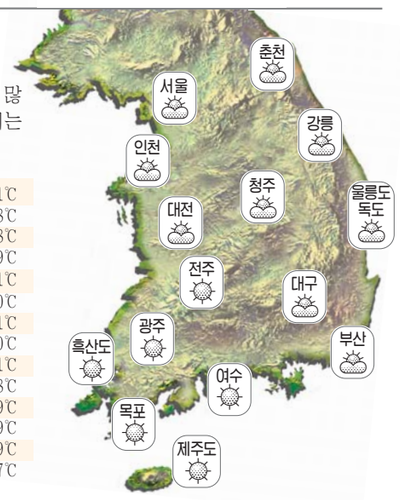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4분 / 해짐 19시 50분 — 달뜸 00시 56분 / 달짐 15시 22분

출근길 안개 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으며, 오전 한 때 안개끼는 곳도 있겠다.

광 주	구름조금	22/31℃
목 포	구름조금	21/28℃
여 수	구름조금	22/28℃
완 도	구름조금	21/29℃
구 례	구름조금	19/31℃
해 남	구름조금	21/30℃
장 흥	구름조금	21/31℃
고 흥	구름조금	20/30℃
순 천	구름조금	21/31℃
영 광	구름조금	22/28℃
진 도	구름조금	21/29℃
전 주	구름조금	21/29℃
남 원	구름조금	19/29℃
흑산도	구름조금	21/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9:26 / 22:38	03:17 / 15:19
여수	04:27 / 17:44	10:55 / 23:52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날 씨						
최저/최고	20/32	22/30	23/27	23/28	23/29	23/30

5·18교육관 완공 본격 운영

옛 상무대 법정 인근에

옛 상무대 법정 인근에 5·18교육관이 완공돼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광주시는 6일 5·18 민주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옛 상무대 법정 인근 부지 3465㎡에 5·18교육관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5·18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8㎡로 체력단련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 교육공간으로 구성됐다.

5·18교육관 인근에는 5·18 자유공원과 옛 상무대 법정, 영창 등이 인접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관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은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맡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 서구, 광덕·서석중 지정

광주시 서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학교 주변 자전거 통학 환경이 좋은 41개 학교에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신청률이 높고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광덕·서석중학교 2곳을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김호기자 kimho@

국내선 '원패스 탑승' 수속 절차 간소화

한국공항공사는 6일 국내선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권을 출력해 이용할 수 있는 '원패스 탑승 서비스'를 전국 공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원패스 탑승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어 탑승 수속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